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영주[†]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강의초빙교수
(2021년 11월 5일 접수: 2021년 12월 27일 수정: 2021년 12월 29일 채택)

Impact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Typ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Jeong Young j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5, 2021; Revised December 27, 2021; Accepted December 29, 2021)

요 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J도 소재 3,4학년 간호대학생 198명으로,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진로정체감 2.79점(범위 1~4), 합리적 유형 3.78점(범위 1~5), 직관적 유형 3.38점(범위 1~5), 의존적 유형 3.01점(범위 1~5), 진로준비행동 3.51점(범위 1~5)이었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정체감($r=.40, p<.001$), 합리적 유형($r=.50, p<.001$), 직관적 유형($r=.22, p=.002$)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의존적 유형($r=-.20, p=.004$)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정체감($\beta=.23, p=.001$), 합리적 유형($\beta=.31, p<.001$), 직관적 유형($\beta=.27, p<.001$), 의존적 유형($\beta=-.20, p=.002$)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은 진로준비행동을 24.6%p 설명하였다($F=11.93, p<.001$).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로정체감 확립과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지도를 포함시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안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진로,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준비행동

Abstract : This study identified the impact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typ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98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the 3rd and 4th grades located in J province,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4, 2021 to 27, 2021, using an online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SPSS/WIN 23.0 program.

[†]Corresponding author
(E-mail: jeongyj3203@gmail.com)

As a result, the mean score of career identity, rational type, intuitive type, dependent typ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2.79(range 1~4), 3.78(range 1~5), 3.38(range 1~5), 3.01(range 1~5), and 3.51(range 1~5), respectivel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areer identity($r=.40$, $p<.001$), rational type($r=.50$, $p<.001$), intuitive type($r=.22$, $p=.002$), and dependent type($r=-.20$, $p=.004$).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career identity($\beta=.23$, $p=.001$), rational type($\beta=.31$, $p<.001$), intuitive type($\beta=.27$, $p<.001$), and dependent type($\beta=-.20$, $p=.002$).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24.6%p of the variance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F=11.93$, $p<.001$).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areer identity and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hat includes career guidance according to career decision-making type to improve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 Career, Career Identity, Decision-Making, Behavio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대학 시기는 직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진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진로 선택과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시기이다[1].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단지 직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과 만족에도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인생에서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2].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보다는 대학에 입학하는 그 자체에 중요성을 두고 입시 준비를 해왔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직업세계탐색, 체계적인 진로상담이나 지도를 받은 경험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대학에 입학한 후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학생이 많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3].

대학진로교육 현황조사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대학기간 중 가장 큰 고민은 4년제 대학생의 경우 60%, 전문대생의 경우 59.7%가 '졸업 후 진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4].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사회로의 안정적인 진출이라는 진로발달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과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대학 전공별 취업통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취업률이 평균 63.3%인 반면에 간호대학생의 취업률은 85.7%로 나타났다[5]. 대학생

들의 취업문제와 증가하는 청년실업률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많은 학생들은 타 전공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취업률과 직업안정성이 있는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6]. 간호학과 특성상 입학과 동시에 진로결정과 취업의 방향이 정해지고 졸업과 동시에 전공 분야인 간호사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대학생활 기간 다른 학과 학생들에 비해 진로와 취업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6]. 이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7], 취업 후 낮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인해 이직으로 이어지게 된다[8].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취업과 적응을 위해 체계적인 진로준비행동이 필요하다.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9]. 특히, 대학생활 기간에 이루어지는 진로준비행동은 이후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준비행동의 시기가 빠를수록[11],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계획과 진로확신수준이 높고[13], 졸업 후 직장에서의 적응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14]. 반면에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를 발생시켜, 취업 후 직무만족도와 간호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기이직의 원인이 될 수 있다[6,15].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대학기간 동안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진로교육과 지도를 진행하

기 위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진로정체감을 제시하고 있다[16-18]. 진로정체감은 진로 선택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자아상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하며[19], 피할 수 없는 모호한 환경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기 확신과 관련이 깊다[19]. 진로정체감이 확립되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학업에 매진하게 되고[20]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진다[16-18]. 반면에, 진로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지 않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고[21],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6-18]. 또한 취업 후 간호사로서 병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곧 높은 이직의도와 신규간호사가 직장을 조기 이탈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22].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진로목표를 명확하게 하여 진로선택과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로정체감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은 개인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반응하는 특징적인 형태, 혹은 개인이 문제의 대안을 선택, 결정 혹은 실행에 옮기는 방식들을 의미한다[23]. Harren[23]은 진로의사결정유형은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인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합리적 유형은 자신과 기대되는 상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스스로 지려는 특성이 있기에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이고, 직관적 유형은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리적 평가보다는 개인의 내적인 감정적 상태에 의존하여 느낌과 감정, 상상 등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존적 유형은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수동형이며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은 유형이다. 3가지 의사결정 유형 중 합리적 유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다[23]. 선행연구에서 합리적 유형은 전공 및 직업 선택과 관련한 진로를 결정하

는 과정과 진로준비행동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직관적 유형은 선행연구에서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고, 의존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18]. 따라서 간호대학생에서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지도와 중재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확인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확인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J도에 소재한 3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4학년 학생으로서 본 연구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Google drive에서 작성된 온라인 설문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진로준비 경험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고려하여[24,25] 3,4학년을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표본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16,26]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효과크기를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α) .05, 중간 효과크기(f^2) .15, 검정력($1-\beta$) .95, 예측변수 11개(성별, 학년, 연령, 학업성취도, 전공 선택 동기, 취업희망 분야,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를 고려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최소 178명으로 산출되었다. 선행연구에서의 탈락률을 고려하여[27,28]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210명으로 하였고, 이 중 설문응답이 불충분하였던 12부를 제거한 후 198부의 자료를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Holland, Gottfredson과 Power [19]가 개발한 진로상황검사(MVS: My Vocational Situation)의 하위척도인 정체감 척도 18개 문항을 Kim과 Kim[9]이 한국 대학생의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Kwon과 Kim[29]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14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Kim[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9였고, Kwon과 Kim[2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4였다.

2.3.2.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의사결정유형은 Harren[23]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ACDM: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유형검사를 Koh[30]가 번역·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합리적 유형 10문항, 직관적 유형 10문항, 의존적 유형 10문항의 3개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

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Harren[23]의 연구에서 합리적 유형 Cronbach's α 값은 .81, 직관적 유형 Cronbach's α 값은 .54, 의존적 유형 Cronbach's α 값은 .78이었으며, Koh[30]의 연구에서 합리적 유형 Cronbach's α 값은 .78, 직관적 유형 Cronbach's α 값은 .83, 의존적 유형 Cronbach's α 값은 .84였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유형 Cronbach's α 값은 .81, 직관적 유형 Cronbach's α 값은 .84, 의존적 유형 Cronbach's α 값은 .90이었다.

2.3.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Kim과 Kim[9]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를 Lee[31]이 수정·보완하고 Kwon [32]이 5점 척도로 재구성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정보수집활동 6문항, 도구구비활동 5문항, 실천적 노력 7문항의 3개 하위영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84였고, Lee[3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8, Kwon[3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9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값은 .93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정보수집활동 .83, 도구구비활동 .83, 실천적 노력 .87였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였으며, 자가 보고식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각 대학의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 모집공고문과 설문 접속을 위한 링크를 올려 모집하였다. 모집공고문과 연구 설명문을 통해 연구 목적과 방법, 참여자의 권리, 익명성과 비밀보장, 연구 참여 철회 및 연구 활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보호를 위한 윤리적 원칙에 의거하여 온라인 설문지에 제시되어 있는 연구 설명문과 참여 동의서를 읽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설문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의 소요 시간은 약 10~15분이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검정을 위해 Kolmogorov-Smirnov test와 Breusch-Pagan test를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든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자 156명(78.8%), 남자 42명(21.2%)이었고, 3학년 86명(43.4%), 4학년 112명(56.6%)이었다. 연령은 평균 23.12 ± 3.09 세로, 24세 이하 161명(81.3%), 25세 이상 37명(18.7%)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3.5 이상이 93명(47.0%)으로 가장 많았고, 전공 선택 동기는 적성 75명(37.9%), 취업률 68명(34.3%), 권유/고교 성적 32명(16.2%), 전문직 23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희망 분야는 국내병원이 143명(72.2%)으로 가장 많았고, 전공만족도는 만족 114명(57.6%), 보통 70명(35.4%), 불만족 14명(7.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진로준비행동의 정도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79 ± 0.65 점으로 나타났다. 진로의사결정유형 중 합리적 유형은 5점 만점에 평균 3.78 ± 0.53 점, 직관적 유형 3.38 ± 0.60 점, 의존적 유형 3.01 ± 0.71 점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5점 만점

에 평균 3.51 ± 0.73 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정보수집활동 3.80 ± 0.73 점, 도구구비활동 3.48 ± 0.84 점, 실천적 노력 3.27 ± 0.89 점 순이었다. 자료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제시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이 왜도 절대값 2미만, 첨도 절대값 4미만의 기준[33]에 부합하여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 전공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즉, 여자에 비해 남자인 경우($t=2.49, p=.014$), 3학년에 비해 4학년인 경우($t=-2.46, p=.015$), 학점이 3.5 이상인 경우($F=7.17, p=.001$), 전공 선택 동기가 취업률인 경우에 비해 적성인 경우($F=3.52, p=.016$), 전공만족도가 보통, 불만족에 비해 만족인 경우($F=11.42, p < .001$) 진로준비행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3.4.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정체감($r=.40, p < .001$), 합리적 유형($r=.50, p < .001$), 직관적 유형($r=.22, p=.002$)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의존적 유형($r=-.20, p=.004$)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합리적 유형($r=.34, p < .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의존적 유형($r=-.14, p=.046$)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5.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가정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는 $1.954(du=1.908 < d < 4-du=2.092)$ 로 2에 가까우며 du (상한값)과 $4-du$ 사이에 존재하여 오차의 독립성 및 자가상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 r 값은 모두 0.80 미만, 공차(tolerance)의 범위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8)

Characteristics	Category	n (%) or Mean±SD (rang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an±SD	t/F (p) Scheffé
Gender	Female	156 (78.8)	3.44±0.74	2.49 (.014)
	Male	42 (21.2)	3.75±0.64	
Grade	Junior	86 (43.4)	3.37±0.66	-2.46 (.015)
	Senior	112 (56.6)	3.62±0.76	
Age(year)		23.12±3.09 (20~38)		
	≤24	161 (81.3)	3.48±0.74	-1.26 (.208)
	≥25	37 (18.7)	3.64±0.65	
<3.0 ^a	32 (16.1)	3.11±0.69	7.17 (.001) a<b,c	
Academic achievement	3.0~<3.5 ^b	73 (36.9)		3.49±0.80
	≥3.5 ^c	93 (47.0)		3.66±0.63
	aptitude ^a	75 (37.9)	3.69±0.66	3.52 (.016) a>b
Motivation for choosing nursing	employment rate ^b	68 (34.3)	3.34±0.75	
	professions ^c recommendation	23 (11.6)	3.62±0.64	
	/high school score ^d	32 (16.2)	3.35±0.79	
Hope of work field	hospital in Korea	143 (72.2)	3.44±0.78	1.96 (.121)
	foreign hospital	10 (5.1)	3.84±0.60	
	public official health teacher	31 (15.7)	3.61±0.56	
	/graduate school	14 (7.0)	3.77±0.49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a	114 (57.6)	3.71±0.65	11.42 (<.001) a>b,c
	moderate ^b	70 (35.4)	3.28±0.74	
	dissatisfied ^c	14 (7.0)	3.07±0.77	

SD=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Table 2. The Level of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Typ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198)

Variables	Categories	Mean±SD	Min~Max	Skewness	Kurtosis
Career Identity (range 1~4)		2.79±0.65	1.21~4.00	0.090	-0.883
Career Decision-Making Type (range 1~5)	rational type	3.78±0.53	2.30~5.00	-0.057	-0.310
	intuitive type	3.38±0.60	1.70~5.00	-0.081	-0.116
	dependent type	3.01±0.71	1.30~4.60	0.018	0.366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ange 1~5)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y	3.80±0.73	2.00~5.00	-0.332	-0.596
	tools supporting activity	3.48±0.84	1.00~5.00	-0.483	0.183
	practical effort	3.27±0.89	1.14~5.00	-0.244	-0.198
	Total	3.51±0.73	1.56~5.00	-0.290	0.119

SD=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Table 3. Correlation among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Typ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198)

Variables	Career Decision-Making Type			
	Career identity	Rational type	Intuitive type	Dependent type
	r (p)	r (p)	r (p)	r (p)
Career Identity	1			
Rational type	.34 (<.001)	1		
Intuitive type	.03 (.707)	.08 (.295)	1	
Dependent type	-.14 (.046)	-.17 (.018)	.33 (<.001)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40 (<.001)	.50 (<.001)	.22 (.002)	-.20 (.004)

범위는 0.19~0.96로 0.1보다 컸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범위는 1.04~5.20으로 기준치 10미만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대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표준화된 잔차에 대한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가정($Z=0.61$, $p=.851$)과 Breusch-Pagan의 등분산성 검정($\chi^2=20.70$, $p=.079$)이 만족되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단변량 분석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였고 확인된 변수들은 더미(dummy)변수로 처리하여 통제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1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 전공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를 모형에 투입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을 17.3% 설명하였으며($F=5.59$, $p<.001$), 성별(남; $\beta=.14$, $p=.037$), 학년(4학년; $\beta=.17$, $p=.011$), 학업성취도(3.5 이상; $\beta=.26$, $p=.007$), 전공만족도(만족; $\beta=.35$, $p=.010$)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고려한 모형 2에서는 진로정체감,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을 투입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을 추가적으로 24.6%p 더 설명하였으며($F=11.93$, $p<.001$), 합리적 유형($\beta=.31$, $p<.001$), 직관적 유형($\beta=.27$, $p<.001$), 진로정체감($\beta=.23$, $p=.001$), 의존적 유형($\beta=-.20$, $p=.002$)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

이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합리적 유형이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79점으로,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Cha[34]의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 2.73점과 유사하였고, Seong 등[16]의 연구에서 보고된 2.59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Lee와 Cha[34]의 연구대상자는 3, 4학년이었던 반면에 Seong 등[16]의 연구대상자는 1~4학년으로 학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35] 입학 후 1학년부터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정립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해 뚜렷하고 체계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는 학년별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중 합리적 유형은 5점 만점에 3.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존적 유형은 3.0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36]과 일반대학생[18]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

Table 4. Effects of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Typ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198)

Variables	Model 1				Model 2			
	B	SE	t	p	B	SE	t	p
(Constant)	2.58	0.22	11.6	<.001	0.14	0.44	0.32	.749
Gender (male) (ref=female)	0.25	0.12	2.10	.037	0.20	0.10	1.92	.056
Grade (senior) (reference=Junior)	0.25	0.10	2.57	.011	0.28	0.08	3.36	.001
Academic achievement (3.0~<3.5) (reference=<3.0)	0.27	0.14	1.8	.056	0.19	0.12	1.58	.116
Academic achievement (≥3.5) (reference=<3.0)	0.38	0.14	2.6	.007	0.30	0.12	2.43	.016
Motivation for choosing nursing (aptitude) (reference=employment rate)	0.18	0.12	1.2	.137	0.19	0.10	1.89	.060
Motivation for choosing nursing (professions) (reference=employment rate)	0.20	0.16	0.9	.228	0.15	0.14	1.07	.285
Motivation for choosing nursing (recommendation) (reference=employment rate)	-0.04	0.14	-0.2	.767	0.01	0.12	0.09	.925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reference=dissatisfied)	0.52	0.20	2.59	.010	0.02	0.18	0.13	.901
Major satisfaction (moderate) (reference=dissatisfied)	0.21	0.20	1.4	.300	0.07	0.17	0.39	.695
Career identity					0.26	0.08	3.38	.001
Rational type					0.43	0.08	5.15	<.001
Intuitive type					0.33	0.07	4.55	<.001
Dependent type					-0.20	0.06	-3.15	.002
Adjusted R ²	.173							
ΔAdjusted R ² (p)	.246 (<.001)							
F (p)	5.59 (<.001)							
11.93 (<.001)								

Durbin-Watson=1.954, Kolmogorov-Smirnov (Z=0.61, p=.851), Breusch-Pagan (x²=20.70, p=.079)

B=unstandardized estimates; SE=standardized error; β=standardized estimates

하였다. 의존적 유형은 자신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주로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수동적인 특성을 가진 유형으로[23],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51점으로,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 등[28]의 연구에서 보고된 3.21점과 Jang과 Moon[26]의 연구에서 보고된 4점 만점에 2.51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Shin 등[28]의 연구와 Jang과 Moon[26]의 연구에서는 1~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학생의 비율이 각각 13.9%, 8.2%이었던 반면에, 본 연구대상자는 3, 4학년이며 남학생의 비율이 21.2%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선행연구[17]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인 경우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 전공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Park[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여학생이 다수인 환경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여학생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7].

연구결과 3학년에 비해 4학년인 경우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Park[1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취업시기가 가까워지는 고학년일수록 진로 및 취업 결정을 위한 진로준비행동 정도가 높아져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저학년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학년별 교육적 중재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연구결과 학업성취도 3.0 이상인 경우가 3.0 미만인 경우보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았다. 이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17]과 일반대학생[18]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이 높은 학생이 성적이 낮은 학생에 비해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보수집과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진로준비활동을 강화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진로준비행

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점관리에 관심을 두고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습전략과 진로지도가 요구된다.

연구결과 간호학과 입학 시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취업률인 경우에 비해 본인의 적성인 경우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Lee 등의 연구[38]와 유사한 결과로, 타 전공에 비해 높은 취업률이 졸업 후 취업보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보다 본인의 적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로탐색과 준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취업과 취업 후 만족도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전공 선택 동기를 고려한 진로상담 및 지도가 필요하며, 보다 더 신중하게 진로 탐색과 결정을 할 수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진다[26,38]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추후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전공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흥미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수들 상호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즉,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6-18]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는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계획인 진로정체감[19]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과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의존적 유형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36]과 일반대학생[18]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 유형일수록, 직관적 유형일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증가하고, 의존적 유형일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1에서는 일반적 특성 변수 중 성별, 학년, 학점, 전공만족도가 유의하였고 17.3%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형 2에서는 독립변수가 추가되었는데, 이 중 진로정체감,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이 유의하였고 24.6%p 증가된 총 41.9%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하위요인 중 합리적 유형으로 밝혀졌다. 이는 진로의사결정유형 중 합리적 유형이 가장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진로계획과 정보탐색,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한 Harren[23]의 결과를 지지한다. 합리적 유형은 자신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다 더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특성을 지닌다[2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 유형일 수록 자신의 진로탐색과 결정을 위한 준비가 철저해서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직관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의존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의 정도가 높을수록, 의존적 유형의 정도가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3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의사결정유형의 모든 하위요인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먼저 대상자의 의사결정유형 수준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유형에 따른 정확한 이해와 자신의 진로선택과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활동을 할 수 있는 진로지도와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진로의사결정유형 다음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진로정체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6-18]에서도 진로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즉, 자신의 목표, 흥미 및 재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청사진을 통해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포함된 진로정체감[19]이 간호대학생들에게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진로선택과 진로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정체감은 단기간에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성숙해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39] 입학 후 학년별로 진로탐색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다양한 진로 분야의 실습과 인턴십 과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업

체험의 기회를 단계적으로 제공하여 직업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확립시켜 진로준비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모두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합리적 유형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에 진로정체감 확립에 초점을 두고,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지도와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는 J도 소재 3개 대학의 3,4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 다양한 지역과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 반복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의 향상을 위해 진로정체감 확립과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D. E. Super,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6, No.3, pp. 282-298, (1980).
2. M. Lee, N. Y.,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Decision-Making Difficulties in College Students: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Decentering and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32, No.4, pp. 1815-1836, (2020).
3. J. K. Park, "Analysis on the Career

- Identity Type and Influential Factors of Education Major Students in Four Year Univers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4.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ment of results of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college career education:2017 [Interne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17[cited 2021 October 4], Available From: <https://moe.go.kr>
 5.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The Status of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Internet]. Jincheon: Korean Educational Stastics Service, 2020[cited 2021 October 4], Available From: <https://kess.vedi.re.kr/index>
 6. K. A. Lee, J. H. Kim,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12, No.1, pp. 42-49, (2015).
 7. Y. H. Seo, J. W. Lim, B. Y. Jung, “The Effect of Career Call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 Empirical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of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Moderating Effects of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2, No.3, pp. 265-284, (2019).
 8. J. Y. Yoo, J. Y. Park, C. H. Woo, “Career Attitude Maturity, Calling, and Work as Meaning Affecting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among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1, No.5, pp. 480-488, (2015).
 9. B. W. Kim,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9, No.1, pp. 311-333, (1997).
 10. H. Y. Sun, J. K. Lee, S. K. Kim, “Career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Study”,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3, No.2, pp. 1-24, (2012).
 11. J. H. Lim, M. K. Kim, J. K. Kim, E. Y. Koh, “Cluster Analysis and Group Differences by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Career Preparat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9, No.2, pp. 417-442, (2012).
 12. J. Y. Hwang, J. H. Park, “A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Related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4, No.5, pp. 73-101, (2015).
 13. V. Skorikov, “Continuity in Adolescent Career Preparation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70, No.1, pp. 8-24, (2007).
 14. S. U. Oh, S. K. Lee,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Job Preparation Behavior and Pre-engineering o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ir Job Value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Job and Employment Service*, Vol.14, No.2, pp. 17-34, (2019).
 15. J. U. Kim, H. H. Kim, “The Influence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6, pp. 797-814, (2016).
 16. J. A. Seong, S. Y. Bang, S. Y. Kim,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olistic Health Science*, Vol.2, No.2, pp. 29-38, (2012).
 17. D. S. Park, “The Effect of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 359-367, (2017).
 18. H. J. An, “The Influence of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 Decision Type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3).
19. J. L. Holland, G. D. Gottfredson, P. G. Power,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9, pp. 1191-1200, (1980).
 20. S. H. Kim, "*The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Work Practicum on Career Development - Laying Stress on Vocational Identity,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7).
 21. A. R. Spokane, Holland's theory.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33-74),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6).
 22. K. A. Lee, J. Kim,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12, No.1, pp. 42-49, (2015).
 23. V. H. Harren,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4).
 24. J. Y. Park,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Career Decision Mak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50, No.4, pp. 257-274, (2019).
 25. M. O. Chae,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4, pp. 229-238, (2019).
 26. T. J. Jang, M. Moon,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4, pp. 344-352, (2016).
 27. H. K. Kim,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Parents' career support on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8, No.3, pp. 708-719, (2021).
 28. H. B. Shin, J. M. Kang, G. J. Ryu, S. Y. Lee,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0, pp. 1249-1265, (2020).
 29. Y. H. Kwon, C. N. Kim,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13, No.2, pp. 216-229, (2002).
 30. H. J. Koh,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3).
 31. M. S. Lee, "*Analysis of Relationship amo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2003).
 32. Y. J. Kwo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Related Variables Based o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8).
 33. S. Hong, M. L. Malik, M. K. Lee,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63, No.4,

- pp. 636-654, (2003).
34. S. H. Lee, E. J. Cha, "Effects of Verbal Abuse, Sexual Violence,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17, No.4, pp. 550-560, (2017).
 35. J. A. Kim, J. S. Kang, K. S. Seo, "A Convergence Comparison of the Stress,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College Admission process and Grad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2, pp. 99-112, (2017).
 36. W. H. Hwang, K. E. Bae, "The Effect of Personality Type and Career Decision Making Typ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Vol.8, No.3, pp. 1237-1258, (2017).
 37. Y. J. Ko,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1, pp. 62-71, (2011).
 38. E. J. Lee, H. J. Kim, E. B. Park, J. H. Park, M. J. Jeong, J. H. Jeong,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 pp. 263-278, (2018).
 39. Y. R. Seo, S. H. Lee, "Comparison between Self-Identity and Career-Identity on Career Attitude Matur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2, pp. 525-542, (2012).